

# 특집/무진년에 비린다

戊辰年./ 龍의 해가 밝았다.

용은 예로부터 봉황, 거북이 등과 함께 영물로 쳐져 왔으며, 꿈에 용이 승천하는 광경을 보게되면 크게 좋은 일이 있다고 얘기되어질 만큼 신비의 동물이다.

그래서일까./ '88년 한해는 그 어느때 보다도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일을 겪으면서 보내야 했던 병인년을 뒤로하고, 새해에는 용에게 비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무진년에 바라는 얘기들을 사회 각계 인사들로부터 들어본다.

## 희망찬 내일을 설계하는 무진년이 되기를



이 준 상

정묘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무진년에도 더욱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누구든 각자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희망찬 내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보면 6·29민주화 선언에 따른 대통령선거가 끝났으니 이른 봄에 취임식과 그에따른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선거가 있을 것이고, 9월이면 '88년 서울에서 세계올림픽이 개최될 것이다. 이 얼마나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바쁜 일정이었는가! 국내에 있으면 웬만한 사건들이 무감각하게 지날칠지 모르지만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 한다.

정묘년의 학생테모, 노사분규 및 선거혼란이 외국인이나 해외교포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 작년에 열대병조사 관계로 77일간 아프리카에 머문적이 있었다. 아프리카까지도 T.V나 신문에 한국의 혼란을 마구 쏟아놓고 있었다.

만나면 “내년에 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으나”하는 질문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다. 외국인에게서 이와같은 질문을 받았을때 착착함은 나만이 느끼는 감정이겠는가. 다 만들어 놓은 음식에 콧물 빠드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솟구친다.

물론 민주화를 위해 온 국민이 투쟁한 것은 중요하다. 또 머릿통 깨져가면서 싸운 대통령선거가 하루아침에 말끔히 가라앉지 않을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과

“

지나간 사소한 문제

거론하기 보다는

희망찬 내일을 설계하며

빛나는 조국건설에 앞장서서

뜻있는 무진년을

보내기 바란다.

”

거에만 집착한다면 어찌하겠는가. 한 인간으로서도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물며 정치에서야 더욱 그렇다. 자기자신의 욕심보다는 국가와 민족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더욱 그렇다.

아울러 각자가 자기 직분에만 좀더 매진하는 사회가 아쉽다. 한가정에서 자식이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무시하고 자기 위주로 양탈만 부린다고 가정하여 보자. 뭐 어찌라는 꼴이 되겠는가 부모는 부모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자식은 자식의 처지가 있을 것이다. 부부사이에도 지켜야 할 한계가 있듯이 우리국민들은 다른사람의 처지·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정치는 정치가가 해야지 비정치인이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다. 자기 아니면 안된다는 사고방식도 하루 빨리 불식되어야 한다.

민주화는 지방자치에서 부터 싹터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성숙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격어 온 바와같은 중앙집권의 모순성을 하루빨리 허물어 버려 누구나 자기가 속해 있는 지방이나 기관이 자치적으로 모든일들을 처리함이 신속할 뿐 아니라 알찬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들 건강에서 보더라도 가장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물론 자신이다. 다른사람이 어떻게 남의 건강에 대해 이렇쿵저렇쿵 말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제도상으로 좋은 건강 계획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기자신이 무관심하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없음은 분명하다. 타의에 의한 건강체크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음은 보아왔다.

건강과 같이, 누구든지 자기자신이 해결하려는 의도로 사회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밝을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혼란을 지방자치에서 얻어 국가전체의 민주주의로 승화시켜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른나라에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적 기적뿐만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의 기적도 얻게 된다. 지나간 사소한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것보다는 희망찬 내일을 설계하며 빛나는 조국건설에 앞장서서 뜻있는 무진년을 보내기를 바란다. 아울러 국민 모두 건강에 유의 하여 국력을 과시하기를 바란다.

〈필자= 고려의대 교수·의박〉

## 의료보장정책의 굳건한 기틀을 다져야겠다.



윤 상 응

戊辰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는 사회 보장제도의 핵심적기능을 담당해온 의료보험제도가 농·어촌지역에 확대되어 그동안 제도권에서 소외되어 상대적으로 비싼 의료비를 부담하여 왔던 8백26만명에 달하는 농어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라는 새로운 사회 보장제도가 도입되어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 노령자에 대한 노후의 생활보장은 물론 장애 및 사망에 따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국민들의 여망인 복지사회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뜻깊은 새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77년 7월 1일 사업장근로자 3백14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보험은 실시10년 6개월만에 전국민의 68.7%에 달하는 2천 8백87만명으로 확대됐고 의료보호대상자(의료부조포함) 4백38만 6천명을 포함하면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전국민의 79.2%에 달한다.

정부는 또 내년도에 도시지역에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후 11년 6개월만에 전국민의 의료보장 시대를 열게되는 셈이다.

일본이 전국민의 의료보험을 구현하는데 50년이 걸렸다는 점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의료보장정책은 실로 엄청난 발전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안정된 재정기반위에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제들이

56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의료비의 증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인구의 노령화와 각종 성인병이 늘어나고 있어 정책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99

해결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과제는 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의료자원을 어떻게 지역간 고른 분산을 유도할 것인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미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인구의 노령화와 각종 성인병의 증가로 의료비가 매년 급격히 증가, 사회보장 재원을 고갈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 대책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복지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의료비의 증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인구의 노령화와 각종 성인병이 늘어나고 있어 정책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의료보장제도가 국민에게 경제적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가운데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의 질병예방사업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아직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사전에 지킬수 있는 경제적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전개하고 있는 기생충질환의 예방 사업을 비롯하여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보건계몽사업은 의료보장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健協은 그동안 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땅에서 기생충질환을 퇴치하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 또 첨단 검진장비를 확보, 건강진단 사업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협의 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국민들의 이용도가 낮다는 느낌을 갖게된다.

전국민의료보장시대를 여는 새해를 맞아 효율적인 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의료보장정책의 굳건한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협회의 사업과 기능에 대한 범국민적 캠페인이 전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주간건강 취재부차장)

## “腦死” 인정되길 바란다.



정 경 수

뇌사란 뇌부상과 같은 사고나 뇌출혈과 같은 질병 등으로 인해 뇌기능이 거의 완전히 정지돼 의학적인 어떤 수단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놓인 것을 말한다.

뇌사상태는 사고·언어·감각· 기억·학습 등의 뇌기능이 모두 상실됐음은 물론, 호흡, 소화, 체온조절, 혈압조절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본기능이 대부분 죽어있다. 그야말로 의학적으로 이미 생명이 끝난 상태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에선 이미 수십년전부터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사상 등의 영향으로 아직도 뇌사가 죽음으로 인정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뇌사인정이 시급한데는 그럴만한 이유들이 있다. 뇌사인정은 불치병환자들에게 새 삶을 열어주는 장기이식의 발달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뇌사상태에 있다하더라도 심장의 박동이나 간세포의 활동은 상당기간 지속돼 뇌사만 인정되면 이들 장기의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67년에 이미 뇌사가 인정된 남아공에서 세계최초의 심장이식이 이뤄졌으며 이후 지금까지 2천여의 시술실적을 올리고 있다.

특히, 미국은 매년 5~6백건의 심장이식수술이 시행되고 있다. 또 간 이식도 지난 63년 미국에서 처음 성공



◀ 뇌사상태는 사고, 언어, 감각, 기억, 학습 등의 뇌기능은 물론 호흡, 소화, 체온조절, 혈압조절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본 기능이 대부분 죽어 있는 상태다.

“  
무진년에는 국내에서도  
심장사와 함께  
뇌사가 죽음으로 인정되어  
억울하게 죽어가는  
귀중한 생명들이  
많이 건져지기를 바란다.”

99

한 이후 세계적으로 약 3천여가 보고돼 있다.

이같은 장기이식으로 새생명을 얻은 뒤 현재까지 18년을 건강하게 살고있는 사람도 있다.

국내의 경우도 이미 지난 68년에 신장이식이 성공한 뒤 각막, 골수, 췌장이식 등이 성공적으로 실시됐고, 심장이식이나 간이식에 요구되는 의술도 충분히 발달돼 있다.

따라서 뇌사만 인정되면, 불치병 환자가 장기이식의 발달에 힘입어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꿎게 죽어갈 수 밖에 없는 당면한 숙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뇌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학계의 목소리가 꾸준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87) 가톨릭의대가 처음으로 “뇌사기준”을 마련해 주목을 끈다.

외부자극에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나 호흡정지상태에서 인공호흡으로 12시간이상 경과한 경우 등은 뇌사를 보고 이중 ‘죽음’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올해 국내에서도 심장사와 함께 뇌사가 죽음으로 인정돼 억울하게 죽어가는 귀중한 생명들이 많이 건져지기를 바란다.

〈필자 = MBC 방송국 문화과학부 기자〉